

긴급점검 / WCC의 문제점 한국기독교WCC반대대책위원회

WCC 무엇이 문제인가?

맺음말 : 찬반의 길목에서

4 WCC 제10차 총회(2013, 부산)와 관련한 어느 학술모임에서 보수계 장로교회 신학자의 모교수는 "WCC는 실령 다소 교리적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기독교 단체이다. ...WCC에 들어가서 그것의 강조점과 심지어 신학적 분위기를 장악하고...세계 최대의 기독교 단체인 WCC의 신학과 사업의 방향을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밖에서 반대 말고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경적인 방향으로 회귀시키자는 것이다.

WCC 회원 가운데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없지 않다. 그들은 WCC의 신학 흐름을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못했다. 피사의 사탑처럼 로마가톨릭주의와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로 기울어져도, 역사적 기독교 개신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뒹그러도, 기독교의 중추적인 진리가 부정되어도 그 흐름을 막지 못했다. 대표자들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신학적으로 소양이 부족한 탓은 아닌 것 같다.

맑은 강물과 탁류의 강물이 합쳐지면 탁류의 강이 된다. 천둥이 치면 만물이 응하는 것처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무의식 중에 따라가고 동화된다. 성경이 "너희는 만지 않는 자와 땅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고후 6:14)라고 가르치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지 않았는가? 신학 사상은 하루아침에 개조할 수 있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물건 같은 어떤 것이 아니다. 개신교인이 로마가톨릭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개혁될 것인가? 검정색 페인트 통에 한 손잡의 흰색 페인트를 집어넣는다고 하여 통안의 페인트가 희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역사를 특단의 조처가 아니고서는 한번 더럽혀진 신앙 상태에서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6세기 종교개혁운동과 같은 특별한 사건만이 교회의 생명력 상실의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다.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로 말미암아 오염된 탁류의 강물에 뛰어들어 그것을 맑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들, 적어도 전체 세계 기독교인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독교인들이 WC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가?

WCC의 신학적 정체성은 우리에게 신학, 민

음, 교회, 예배, 성찬, 성도의 교통신령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믿음의 터가 다른데 누구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누구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누구 앞에서 공동의 고백을 하는 때와 진을 나눌 것인가? 전해야 할 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무엇을 함께 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을 함께 고백할 것인가?

성경은 예배와 교제와 고백에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만유 위에 계신 한 하나님"에 대한 일치된 의미와 신앙을 요구한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과 타종교와의 '대화'에 열성을 보여 온 유럽과 대양주와 미국·캐나다의 교회들의 퇴락은 무엇을 말하는가? WCC 운동에 기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와 달콤한 밀월을 즐기는 것과 같이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5 대한예수교장로회가 WCC 문제로 분열(1969)되기 전, 총회신학부의 박형룡 교수는 선택적인 참여를 권했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 교회 친선의 중요함을 생각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나 교리상 경계와 비타협의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장차 어떤 날 교파 합동의 계획이 구체화 될 때는 이 운동으로부터 단연 탈퇴할 것"이라고 했다. WCC가 로마가톨릭교회와 같은 초교회를 구성하여 개 교회들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반대하지만, 박형룡은 "경계와 비타협의 태도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박형룡의 권고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형룡은 종교다원주의, 종교대화주의(상대주의 진리관), 초종교, 종교연합주의, 구원 보편주의, 거대 에큐메니즘, 하나님의 선교-사회구원 지상주의, 로마가톨릭주의, 교황직에 대한 사도적 계승 인정, 신앙고백 형식주의, 성경불신주의라는 WCC의 신학적 특징들을 모르고 있었다. 박형룡이 걱정하는 것은 대체로 WCC의 자유주의 신학과 그 교리적 동향, 용공주의, 초교회 성향이었다.

박형룡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1968년의 상황에 걸맞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상대주의 진리관과 종교다원주의와 로마가톨릭주의에 잠식당한 오늘

의 WCC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 박형룡의 '선택적 가입' 권고를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탈기독교화되고 비성경적이 된 이 단체의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범주착각과 논점일탈의 오류이다.

한국교회와 보이고 있는 극심한 분열 상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되고 교정되어야 한다. 인간적인 연약성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여러 교단으로 갈라진 것은 비합리하지 않다. 기독교의 분파 상태는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방해하고 교회의 사회적 신인도(信認度)를 떨어뜨린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내적 하나 됨은 외적 일치로 드러나는 것이 옳다.

마지막 분단민족 사회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 문제가 아닌 행정적인 차이와 지역성과 상호 감정의 예각(銳角)을 무디게 하여 하나 됨이 마땅하다.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공동의 증거와 연대 협력 그리고 성공적 사명수행을 위한 성격적인 에큐메니칼운동은 필수적이다. 사회·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타종교인과 만나고 대화하고 연대하여 선교적 목적을 모색하고 사회 봉사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과 '오직 성경' 원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가시적 일치에 달려 있지 않다. 외형적 기구적 단일성을 최고의 무엇으로 여기는 발상 그 자체가 이미 로마가톨릭주의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앙고백적인 일치이며, 성경적 진리 안의 참된 연합과 교제이다. 교단 교파를 달리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중추적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들은 진리 안에서 '주어진(가시적) 일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영적이며 불가분적인 참교회 곧 하나의 거룩하고 공교화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WCC는 '가시적 교회 일치'를 위해 참 교회의 서로 넘어짐이 달린 여러 가지 성경적 진리와 개신교회 신앙 토대를 포기했다.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와 더불어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세력에게 진리의 성분을 활짝 열어주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 요청된다.

사설

“어리석은” 진화론자들에게 묻는다!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른바 시조세의 진화과 말의 진화에 관한 내용이 마치 과학적으로 확정된 근거처럼 실려 있는 내용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약칭:교진추)의 주장이 교과서 업계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자 국내 진화론과 유물론을 신봉하는 학계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삭제요구를 기각해 달라고 교과부에 청원서를 내는가 하면, 과학에 기반한 '교진추'측의 제기를 '감정적·종교적'인 주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교진추'는 "지금까지 발견된 시조세 화석이 공동에서 새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작년 12월과 금년 3월 교과부에 교과서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생물과학협회는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시조세'와 '말의 진화' 부분을 삭제·수정하라는 '교진추'의 청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국생물과학협회'라는 단체는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학전호수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등 6개 학회가 참여하는 공동 학술단체라고 한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런 교과서 논쟁은 국내는 물론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에서도 기사화된 전 세계 네티즌이 조롱했다"며 "만약 교진추 청원으로 과학 교과서가 수정된다면 이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과학 한국의 위상도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의 "웃음거리"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옳으라는 결론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이는 사실조차 외면하는 억지론자들이 바로 한국의 진화론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들이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내 진화론자들이 급고육조처럼 예를 드는 미국의 경우,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과학이론으로는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창조론을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소위 포유동물이 진화하여 조류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시조세 가설이나 일종의 개와 같은 가상동물이 진화하여 말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화석'(fossil)을 근거로 내세우는 가설들은 모두 다 분자 그대로 유물 사상과 진화론에 얽매인 무신론적인 학자들에 의해 가

설로 주장되어 오고 있을 뿐, 아무런 과학적·생물학적 근거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학설인양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 갈 고등학생의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진화론'이 무엇인가? 창조는 없다는 주장이다. 만물은 "우연히 생성된" 어떤 물질이 근원이라는 유물론 사상에 기초를 두고 기독교의 뿌리를 무너뜨려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을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보려는 사탄적 교살이다. 진화론자들은 마치 하나의 종교인 양 집착하면서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시14:1)라고 선포한다. 진화론은 이미 진화론자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물리학의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도 모순되는 가설에 불과하며, 이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생물학계에서도 잘못된 가설로 판기름이 난지 오래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진화론·유물론자들은 유독 무너진 진화론 가설을 조상이나 되듯이 숭상하면서 진화론을 삭제하는 것이 마치 창조론을 교과서에 실으려는 시도로 종교 논리로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우주생성 시 존재한 최초의 입자라고 연구되어온 '힉스 입자'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물질이 '우연히' 생성되었다는 가설은 그 마지막 송풍도 끊어진다.

우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을 아는 체 하는 유물·진화론자들은 니콜레옹이 어느 날 전장 터에서 "신이 없다"고 우기는 병사에게 "나는 저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아는가?"라고 물었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병사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니콜레옹이 대갈 일성하기를 "그러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도 모른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꾸짖었다는 이야기다. 어리석은 진화론자들이여! 그대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조차 확실히 과학적 증거를 다지 못하고 부정확한 가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신도 없고 신의 창조도 없다"라고 감히 아는 체를 하는가? 정직하게 "신의 창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말한다면 어리석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 아닌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5가 89-1 (도로명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cafe.daum.net/cha2319

세계로교회·기도원

“강원도 횡성 청정지역인 병지방계곡의 수려함과 물맑고 공기좋은 세계로교회·기도원에서 연중 무휴 수련회를 받습니다.”

가. 시설

- (1) 식당 : 150명 동식식사가능(유기농식단)
- (2) 숙소 : 독립객실 15개(4~6인실), 성전숙소 등 총 150명 수용가능
- (3) 성전 :
 - 대성전(임 프로젝트 설치) 70평
 - 다니엘 성전 30평
 - * 예배시설 완비(음향, 전자피아노 등)
- (4) 부대시설 : 족구장, 야외텐트장, 동물농장, 구내매점, 바비큐 그릴 설치 등
- (5) 등산로 : 병지방 - 어담산 오토캠핑장까지 약 2-3시간 코스



차충열 목사·김복희 목사내외



- 나. 먹 거 리 : 저희 세계로 교회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청정 발작물과 인근 산야에서 채취한 야생 산나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다. 교 통 : 중앙고속도로 횡성IC에서 30분 거리
- 라. 주변환경

저희 세계로교회는 횡성 어담산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급수의 맑고 수려한 병지방계곡과 국내 유일의 중탄산 온천수인 횡성온천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3-345-2020, 010-2259-2051(김반석 전도사)



cafe.daum.net/cha2319